

메시지 3  
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같은 모양

성경: 롬 6:3-5, 5:17, 갈 3:27

- I. ‘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’ — 롬 6:3.
- A. 침례는 하나의 형식이나 의식이 아니라,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것을 의미한다 — 롬 6:3.
  - B. 침례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잠기어 그분을 우리의 영역으로 삼게 되는데,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분과 하나로 연결되기 위한 것이다.
  - C. 우리는 첫 사람인 아담의 영역 안에서 태어났지만(고전 15:45, 47), 침례를 통하여 둘째 사람(고전 15:47)이신 그리스도의 영역 안으로 옮겨졌다(1:30, 갈 3:27).
  - D.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을 때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 받는다 — 롬 6:3.
  - E. 그리스도의 죽음은 세상과 사탄의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를 분별시켰고, 우리의 타고난 생명, 옛 본성, 자아, 육체, 심지어 우리의 역사 전체를 끝냈다.
- II. “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장사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같이,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.” — 롬 6:4.
- A.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(롬 6:6),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다.
  - B. 자연의 영역에서는 사람이 먼저 죽고 그다음에 장사된다. 그러나 바울의 말이 가리키는 것은, 영적인 영역에서는 우리가 먼저 장사되고 그다음에 죽는다는 것이다.
  - C. 우리는 직접 죽는 것이 아니라 침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간다.
  - D.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음은 하나이다.
  - E.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는 결코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 받을 수 없다. 이것은 그분의 효능 있는 죽음의 요소가 오직 그분, 즉 부활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 안에만 있기 때문이다 — 비교 요 5:29, 11:24-25, 행 1:22, 2:31.
  - F. 로마서 6장 4절에서 ‘아버지의 영광’은 신성이 나타난 것을 가리킨다.
  - G. 침례를 받은 후에 우리는 부활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 — 빌 3:10.
  - H. 부활은 장래의 상태일 뿐 아니라 현재의 과정이기도 하다.
  - I.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부활의 영역 안에서 살고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을 의미한다 — 롬 6:4, 5:17.
  - J. 이러한 생활을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아담에 속한 모든 것이 처리되어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된다 — 롬 12:2, 8:29.
- III. “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랐다면,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랄 것입니다.” — 롬 6:5.
- A. ‘그분과 연결되어 자랐다면’은 유기적인 연결을 가리키는데, 이러한 연결 안에서 자라면 한쪽이 다른 한쪽의 생명과 특성에 참여하게 된다 — 롬 6:5상.
  - B. 우리가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었을 때, 그리스도께서 통과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의 역사가 되었다.
  - C.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, 그분의 죽음과 부활은 이제 우리의 것이다. 이것이 접붙임이다 — 롬 11:24.

- D. 이러한 접붙임은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을 배출시키고,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기능들을 부활시키며, 우리의 기능들을 향상시키고, 우리의 기능들을 풍성하게 하며, 우리의 온 존재를 적셔서 우리를 변화시킨다.
- E.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모양이란 로마서 6장 4절에서 말한 침례이다.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이란 로마서 6장 4절에서 말한 생명의 새로움이다.
- F. ‘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서’(롬 6:5)는 장래의 객관적인 부활이 아닌 현재의 성장 과정을 가리킨다.
- G. 침례 받았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모양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랐다. 이제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의 부활 안으로 자라 가고 있다.
- H. 그리스도의 죽음의 요소가 오직 그분 안에 있는 것과 같이, 그리스도의 부활의 요소도 오직 그리스도 그분 자신 안에 있다. 그분 자신이 부활이시다 — 요 11:25.
- I. 합당한 침례를 체험한 후에,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서 계속하여 그분 안에서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자란다. 이것이 바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— 롬 6:4.

#### IV. “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여러분 모두” — 갈 3:27.

- A. 침례에는 네 방면이 있는데,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 받는 것(마 28:19)과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는 것(갈 3:27)과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침례 받는 것(롬 6:3)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 받는 것(고전 12:13)이다.
- B. 침례는 회개한 사람들의 옛 생명을 끝내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받아시킴으로써, 그들이 옛 상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태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다 — 롬 8:2, 10.
- C. 침례에는 두 방면, 곧 보이는 방면과 보이지 않는 방면이 있다.
  1. 보이는 방면은 물에 의한 것이고, 보이지 않는 방면은 성령에 의한 것이다 — 행 2:38, 41, 10:44-48.
  2. 그 영에 의한 보이지 않는 방면이 없다면 물에 의한 보이는 방면은 공허하며, 물에 의한 보이는 방면이 없다면 그 영에 의한 보이지 않는 방면은 추상적이고 실지적이지 않게 된다. 따라서 둘 다 필요하다.
- D. 삼일 하나님 안으로 침례 받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는 것이다 — 갈 3:27.
  1.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고,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 — 롬 8:10, 14, 갈 3:26, 4:7.
  2.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길이다 — 갈 3:27.
  3.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았기 때문에, 이제 그분과의 유기적인 연결을 누린다. 이러한 유기적인 연결이 우리의 온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다 — 롬 12:2.
  4. 갈라디아서 3장 마지막에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에 대해 말함으로 이 장을 끝맺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— 갈 3:27.
  5. 바울이 침례에 관한 말로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은,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에만 3장에서 다루어진 것이 우리의 체험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— 갈 3:27.
  6.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은 이들은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— 갈 3:27.
  7.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았고,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덮고 계신다.
  8. 한 면에서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으로 잠겼고, 다른 한 면에서는 침례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.
  9.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았고, 우리의 옷 곧 우리의 덮개이신 그분을 입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간증할 수 있다 — 갈 3:27.